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본받아 (2016 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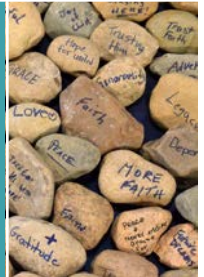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nnesota

뉴스레터

8 월호

kpcm NEWSletter



주요 기사 >>>

당회소식

기관 보고

BUMP 후기

교우소식

당회 소식 >>>

- 1) 본 교단 소속 한인 개척교회 지원을 위해 **Vision Mission** 기금으로 활동교인당 \$10 을 NCKPC(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에 보내기로 하였으며, 9 월 마지막 주일(총회 전도주일)을 국내 선교주일로 결정하고 당일 헌금의 10%를 개척교회 지원을 위해 NCKPC 에 지정헌금하기로 하였습니다.
- 2) 사무실에 이명 증서를 제출해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영부 장로, 장경관 장로, 오혜령 권사, 이종완 권사, 주견숙 권사)을 본 교회 휴무 장로 및 권사로 인준 하였습니다. 인준 내역은 내년부터 교회 요람에 기재하고, 장로님들은 기도 순서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 3) 그동안 한글학교 나랏말씀을 위해 수고하시던 교장 김상호 집사께서 이직관계로 교회를 떠나시게 되어 신임교장에 사공희 집사, 교감에 채청근 집사를 임명 하였습니다.
- 4) 다음과 같이 선교집회 및 선교보고 운영안을 인준하였습니다.

	구분	실시 시기	결정 시기	숙박	예배
1	선교집회	연 1 회	6 개월 전	교회 부담	금/토/일 예배
2	선교보고 - 선교위 후원자	연 2 회 이내	1 개월 전	교회 부담	수요예배 또는 주일
3	선교보고 - 목장 후원자	연 3 회 이내	1 개월 전	후원 목장 부담	수요예배 중



기관 보고 >>>

<p>관리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 장지를 구입하고 연락처가 확인되신 교인들/안장된 분들의 후손들께 추가로 장지구입 확인서를 발급하고 우편으로 배송하였습니다(23 기/총 35 기). 아직 대금 지불 여부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장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교회 장지에 설치할 본 교회 상징 조형물 디자인을 전교인에게 공모 중입니다. 천국백성, 장로 교회 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 조형물 디자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문의 및 제출: 사무실, 오성욱 장로) 체육관 천장 에어컨 주변에 누수가 발생하여 지붕 공사업체에게 A/S 를 신청하였습니다. 교회 1층 로비 카펫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를 점검한 후 재운행을 위해 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청소, 페인트 등으로 지하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교육 위원회 목양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0(수), 7/24(주일) 이규민 목사님과 이현주 사모님을 강사로 모시고 기독교 교육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일 3부 친교 시간에 마련되어 새가족을 섬기고 있는 새신자 목양테이블이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 수양회 준비모임을 8/10 일 수요일예배 후에 가졌습니다.
<p>봉사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3(토)에 최의숙 집사님덕에서 봉사위원회 전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목 및 디모데 야외예배와 한인회 체육대회 준비도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p>선교 위원회 음악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케냐 김윤곤 선교사 초청 선교 집회가 2 박 3 일(7/8-7/10)의 일정으로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참떡 선교" (요 6:32-35), "개화 선교" (요 11:38-44), "민족 등록 선교" (시 87:1-7), "입맛 밥맛 쓴맛" (창 27:1-4, 골 1:24-25), "때에 맞는 선교" (딤후 4:1-5)의 주제로 진행된 5 번의 집회를 통해서 이루 해야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집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26(화) KPCM 이 수립중인 Indian mission 의 일환으로 미네소타의 Pejuhutaziz Presbyterian Church 를 답사차 방문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총 8 인(박성주 목사, 김광식 목사, 박용 목사, 마영찬 장로, 변영희 장로, 강명섭 장로, 이종한 장로, 양승호 집사)이며, 현지 사역 참관/review 및 KPCM 의 가능한 사역 도출에 관한 논의와 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교게시판에 미소 목장이 후원하는 마다가스카르 김학영/이정숙 선교사 관련 사진이 새로 게시되었습니다. 엘리에셀 찬양팀-7/30, 8/6, 8/20 3 주간 김지혜 사모님을 모시고 기초발성에 대한 강의와 레슨을 받았습니다. 8/6(토) 현재 활동중인 엘리에셀 팀원들과 구 팀원들이 함께 차병권 장로님덕에 모여 단합회를 가졌습니다. <div data-bbox="240 1129 639 1430"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39 1129 1089 1430" data-label="Image"> </div>
<p>행정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 연혁이 1 차로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추가 업데이트 사항은 수시로 웹사이트에 수정/보완될 것입니다. 사진팀에서 인원보강을 위해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문의: 김지현 집사/김식철 집사)
<p>제 1 여선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8(금) 선교집회시 저녁예배 후 다과 봉사로 섬겼습니다. 7/10(일) 제 1 여선교회에서 3 부예배때 봉헌송을 했습니다. 7/16(토) 김치를 담갔습니다. 7/23 (토) 65 세 이상 회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8/2 (화) 북미 원주민 선교단 아침 봉사로 섬겼습니다. <div data-bbox="1052 1507 1576 1724" data-label="Image"> </div>
<p>제 2 여선교회 집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3(토) FMSC 봉사를 하였습니다. 8/19(금) NKPW 모임을 위한 점심봉사를 하였습니다. Anoka County 교도소 성경책 보내기 운동으로 총 \$864.00 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으며 곧 후원 단체 담당자를 만나 모금액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p>바울 선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달 바울 예배는 8/27(토) 5 시에 CTC 오피스에서 Welcome dinner 및 정착설명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에 미네소타에 새로 오신 분들을 초청하여 정착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교제할 시간을 가질 계획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울 선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경호 선교사님(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선교보고가 7 월 16 일 진행되었습니다. 귀한 말씀과 나눔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BUMP 선교여행을 마치고 >>> Christine Kim

The 2016 BUMP trip to St. Louis, Missouri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eeks I have ever experienced. The months before our mission, our youth group did many things to prepare to share Christ with the community, but I personally did not feel ready to share Christianity with others as I did not feel strong enough in my own faith. Once we arrived in St. Louis, I quickly came to realize just how wrong I was. The people of the St. Louis community opened my eyes to everything I have become so blind to. The love and compassion Jubilee Community Church showed to us is just as God commanded us as his sons and daughters in Christ to show.

In St. Louis, we completed many different projects with the purpose of making a lasting impact on the community. Throughout the week, we hosted a vacation bible school for the children in the neighborhood to give the parents and guardians a few hours to rest while we had bible lessons for the kids. I had many doubts on how well the children would react and listen to the lessons of Jesus Christ. With prior knowledge on the difference in this community's background lives compared to our own, we went through the week trusting in the will of God. I went on this trip wanting to help others learn about the love and strength of God, but all of the connections I made with the people of St. Louis gave me a clear view of where my own relationship with God is. During our stay, we had many local service projects to complete in order to clean up the neighborhood, and it was the most direct way of seeing the differences in the environments we come from. The poverty and damage seen in the neighborhoods made me realize just how strong their faith is and how much more all of our relationships can strengthen with a bit of a different perspective.

Ultimately, I went on this mission trip with a reluctant and hesitant heart because of my own doubts in Christ, and I came home with a renewed relationship with God, and a newfound respect for all different situations and a person's ability to persevere with the power of Christ in their heart.



2016 BUMP 선교여행은 저에게 무척 중요한 한주간이었습니다.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 몇 개월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 지역 사람들과 예수님을 함께 나누기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해왔지만, 저는 제 스스로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느끼지 않아서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St. Louis 에 도착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St. Louis 주민들은 그 동안 가려져 있던 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Jubilee Community Church 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애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서로 주 안에서 보여주시기를 명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St. Louis 에서 저희는 그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실행했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는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하며 부모님과 보호자들이 몇 시간 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이해하고 반응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지역 사회의 삶이 제가 살고 있는 생활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St. Louis 지역 주민들과 알게 되며 관계를 맺어가는 동안 저는 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주변 정화를 위한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살던 장소와 그 지역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빈곤과 피폐함은 오히려 저로 하여금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였으며,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마음으로 선교여행길에 올랐지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깨달음도 함께 가지고 말입니다.



예배 및 행사 안내

- 8/13(토) – FMSC 봉사,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 8/18~20(목~토) – NKPW 실행위원회
본교회 모임
- 8/19~21(금~주일) – 중고등부 수양회
- 8/20(토) – 65 세이상 여성교회 회원
모임
- 8/27(토) - 바울 찬양예배와 정착 설명회
- 8/28(주일) – 주일학교 PTA 회의,
제 1 여성교회 임원회
- 8/31(수) – 목자모임
- 9/3(토) – 당회
- 9/4~5(주일~월) – 디모데 LT
- 9/7(수) – 중보기도의 밤
- 9/11(주일) – 피택제작 교육 I

이달의 도서 >>> 도서팀

표지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저자: 김양자 목사



추천도서

하나님은 영적 자녀를 문제 자녀로 위장하여 축복하신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찬란한 유산은 “난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 후사를 낳는 비결이다.

주일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2주

사진으로 만나는 **KPCM** 이모저모

7월에 새로 오신 교우님을 소개합니다! >> 영접위원회
 로템카페 상품권 퀴즈 및 지난호 당첨자 발표 >> 뉴스레터사역팀



이름: 유정호, 이세진 (서연, 승민)
 소속: 제 2 남녀선교회



환송

정장욱/김은혜 가정, 7/31 (믿음 목장, Louisiana 로 이주)
 나인성/홍성아 가정, 8/7 (믿음 목장, 한국 귀국)
 신우식/조영주 가정, 8/10 (화목 목장, LA 이주)

로템카페 '상품권' 퀴즈!

답안지를 모두 작성하신 후, 로비에 있는 drop box에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우수 답안 작성자 **세 분께** 로템카페 상품권(수령처: 사무실)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눅 5장 4-6절)
 (숨은그림 : 로켓, 케첩병, 펜촉, 담배, 바게트 빵)



성경숨은그림찾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였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창세기 4장 5-6절)
 (숨은그림 : 양말, 뚝단배, 은행잎, 별, 솜사탕, 달팽이)

뉴스레터 8 월호(통권 30 호) >>>

제출해 주신 원고의 내용은 한정된 지면 및 시간적 제약에 따라 원고의 내용과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집부에서 내용의 첨삭 및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담임목사 박성주
위원장	차병권
편집장	목사 박용
디자인/편집	오은아
원고교정	이은실
취재기자	박은영
사진	각 기관
원고수집	각 기관장
인쇄/복사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송	뉴스레터사역팀
발행처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행일	2016년 8월 21일

기사제보 및 원고제출

kpcmnews@gmail.com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5840 Humboldt Avenue N.

Brooklyn Center, MN 55430

763.560.6699 / 763.560.2222(f)

www.kpcm.org / kpcm@kpcm.org